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지는 도시공간

정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L&D센터 센터장

전 지구적으로 급속화되는 도시화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는 현대 문명의 상징이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의 터전이 되었다. 1950년대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도시에 거주하였지만, 2018년에는 그 비율이 55%로 증가하였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는 경제 성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고, 문화 발전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인구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환경오염, 교통 체증, 주거 문제, 사회적 불평등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도 야기하고 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도시가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아동의 특성과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일부러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도시의 많은 공공공간은 성인의 편의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며, 교통체계 등 공간이 작동하는 방식도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에게는 위험하고 불편할 수 있다.

도시화가 가속될수록 도시는 점점 더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이다.

* United Nations(2018,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news/population/2018-revision-of-world-urbanization-prospects.html>)

** United Nations(<https://population.un.org/wpp/>)

아동권리, 도시에서 길을 잃다

0.75.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그나마 0.72를 기록하였던 전년도에 비해 0.03 높아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18곳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들 지자체에 연간 1조 원의 예산을 2022년부터 10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저출생과 소멸위기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기초지자체의 2009~2021년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 1인당 100만 원의 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 경우 합계출산율은 0.03 증가하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 경우에는 합계출산율이 0.0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림, 2023, pp.1-11). 이는 출산장려금보다 지역 인프라 구축이 출산율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은 아이들 뿐 아니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좋은 인프라는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거주하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여 출산율 증가와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아동인구수의 감소는 오히려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아이들에게 불친절하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보다는 주차장을 선호하는 사람들,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녀야 하는 등하굣길, 단지에 살지 않는 아이들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등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키우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도시가 아닐까? 또한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살맛 나는 도시일 것이다.*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도시공간을 아이들에게 적합한 곳으로 만들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Urban Design Lab(2024, <https://urbandesignlab.in/designing-child-friendly-cities/>)

아동의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다

출산을 앞둔 부부를 떠올려 본다. 그들은 아기를 위해 바닥에 매트를 깔고, 가구 모서리에 보호대를 붙이고, 콘센트에 안전 마개를 씌운다. 아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위험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도시공간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도시를 바라보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유니세프는 아이들의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보기 위한 노력으로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II)에서 시작되었다.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는 ‘아동의 안녕(well-being)’이 건강한 도시, 민주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탄생이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지자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자체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고자 한다. 아동친화도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9개의 국가에서 추진 중이며, 한국에서는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가 첫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었다. 2025년 3월 기준 129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공공 시스템을 재정비하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중 98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3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상위인증을 획득하였다.

아동의 권리와 도시공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024년 국내 아동친화도시 인증기준을 보완하면서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평가영역에 별도로 명시하였다. 중국은 도심개발 과정에서 아동 발달을 우선시하기 위해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전역에 100개의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니세프의 기술 자문을 받아 ‘도심 내 아동친화공간에 관한 국가방침’을 수립하였다(UNICEF, 2023).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유엔 해비타트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도시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UNICEF et al., 2022). 그렇다면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도시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며,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196개 국가가 비준한 명실공히 최다 비준국을 보유한 국제법이다. 그리고 지난 2023년 유엔 사무총장은 아동권리 의제를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해 유엔 시스템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며, 아동권리 주류화에 관한 지침서(Guidance Not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Child Rights Mainstreaming)를 확정하였다. 이는 유엔 스스로가 업무 수행에 아동권리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로, 아동권리접근(Child Rights Approach)이란 유니세프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를 비롯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아동권리접근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원칙은 비차별이다. 도시의 공간은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나 신체적 차이, 경제 상황이나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인 아동 최상의 이익이다. 도시공간은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계획되거나 설계된 공간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공간이라 할지라도 오염이나 쓰레기 등과 같은 물리적 위험이나 범죄·배제·따돌림·괴롭힘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그 기준은 아동이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5조인 보호자,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이다. 도시의 공간은 아동의 특성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나 가족, 지역사회의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예컨대 놀이터나 통학로에서 성인의 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배치 등이 필요하다.

네 번째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인 아동의 참여이다. 공간 조성 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것은 공간을 발굴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것을 넘어 관리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와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알았다면 그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투자이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자원 동원을 명시하고 있다.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원이다. 자원 분배의 우선순위에서 아동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을 아동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투자

에는 경제적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심과 시간 역시 중요한 투자이다. 도시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건축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입하는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투자인 것이다.

최근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작 아동친화도시나 아동친화공간 조성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도시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시는 그들이 더 오래 살고 싶은,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의 고향이나 나의 마을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엔리케 페날로사 보고타 시장이 이야기하였듯이 아동은 일종의 지표종이다. 아동을 위한 성공적인 도시를 만든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공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혜림. (2023).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TIP(TAX ISSUE PAPER), 97(0), 1-11.
- 2 OEC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ttps://www.oecd.org/en/topics/sustainable-urban-development.html>
- 3 Ritchie, H., Samborska, V. & Roser, M. (2018). Urbanization.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urbanization>
- 4 UNICEF. (2023). Global Annual Results Report 2022: Goal Area 5.
- 5 UNICEF, WHO & UN-Habitat. (2022). Public Spaces for Children : Global Principles and Guidance.
- 6 United Nations. (2018). 68% of the world population projected to live in urban areas by 2050, says UN.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news/population/2018-revision-of-world-urbanization-prospects.html>
- 7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https://population.un.org/wpp/>
- 8 Urban Design Lab. (2024). Designing Child-Friendly Cities. <https://urbandesignlab.in/designing-child-friendly-cities/>
- 9 World Bank Group. (2021). Demographic Trends and Urbanization, <https://www.worldbank.org/en/topic/urbandevelopment/publication/demographic-trends-and-urbanization>